

2017년 AAAAI 애틀랜타 학회 참석 후기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전임의 정민영

2017년 3월 2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도시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AAAAI) 에 참석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몸을 비행기에 실었다.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전임의로 참석하는 첫 국제 학회를 경험한다는 기대감에 부풀고 설레었기 때문에 13시간 동안의 긴 비행시간 동안 잠이 잘 오지 않았다.

학회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 동시간에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심사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다. 아직 특정 관심 분야 및 연구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소아 알레르기 입문자라 모두 다 듣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강의 선택에 애를 먹었다.

학회 첫날에는 전임의들만 참석하는 fellowship in training course에 참석하였다. Multiple drug allergy, primary immunodeficiency의 genetic testing, drug challenge vs desensitization 등으로 평소 잘 공부해보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흥미로웠다. 그리고 각 테이블에서 drug allergy case에 관한 유인물을 받고 penicillin allergy의 mechanism과 치료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분위기여서 한국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시간은 전임의 수련 이후 자신만의 연구의 길을 개척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는데 후배들을 향한 젊으신 교수님이 후배들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이 느껴졌다. 전 세계 공통된 이야기겠지만 가족과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를 강조하여 연구자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고민과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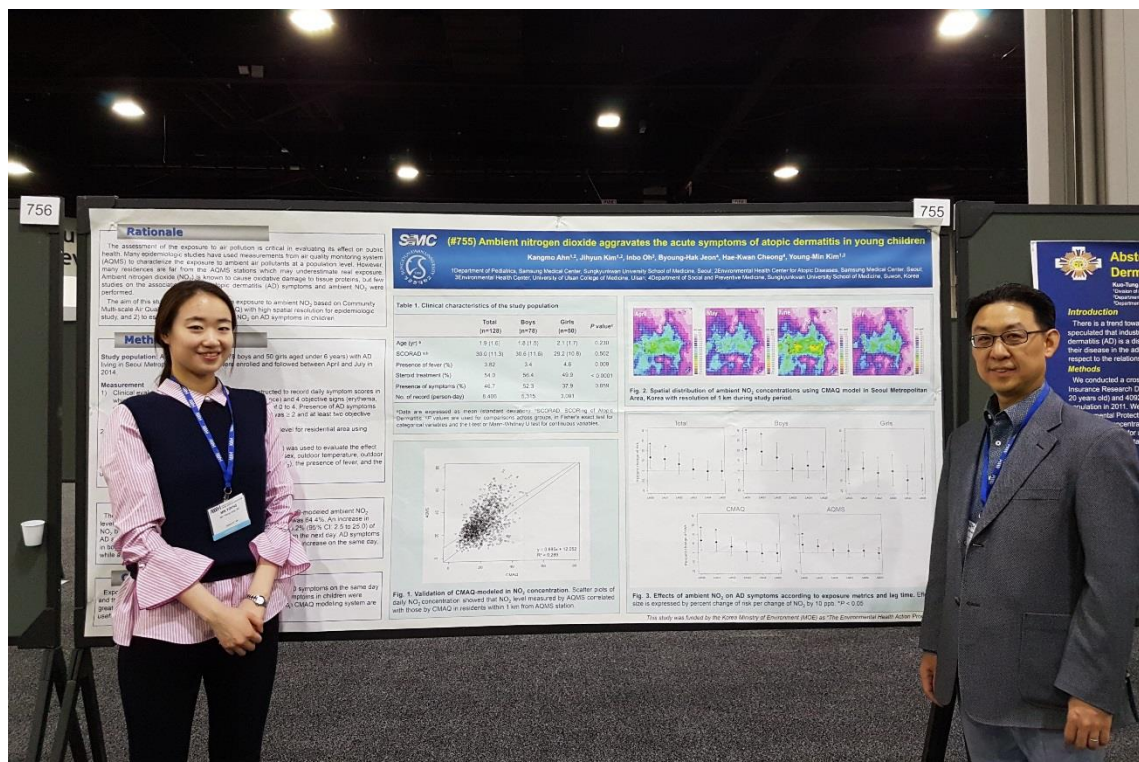
Plenary session이었던 “ Severe asthma exacerbations” 의 발병 기전과 경과, 치료 전략에 대한 최신 지견을 들으며 외래나 응급실에서 힘들게 숨을 쉬고 있던 천식 발작 아이들이 떠올랐다. 악화 원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 악화 요인을 차단하는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끝나고 포스터를 전시하였는데 이 날의 포스터 주제는 천식이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연구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오후에는 유명한 Thomas Fleisher 석학이 강의하였는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많은 outbreak들의 범국가적인 관리, 백신 정책의 역사 그리고 현재 지카 바이러스의 문제 해결 동향까지 정리를 다 해주었다.

최신 연구들 중에 관심 있게 들었던 epithelial barrier in allergic disease 강의는 현재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의 chief editor인 Cezmi Akdis 선생님께서 하셨다. 피부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과 음식 알레르기까지 skin과 bronchus, gut의 tight junction의 역할

이 중요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Journal of American Clinical immunology: Year-in-review workshop"에서는 최근의 천식, 음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의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를 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직접적인 적용과 추후 연구방향을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면역 체계의 기전을 이용한 치료법을 소개하는 강의로 마지막 날 아침을 시작하였다. 이날 포스터 전시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 알레르기, 경구 면역 치료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정말 활발하게 경구 면역 치료를 하고 있고 추적 관찰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food allergen labeling에 대한 규제 강의를 들으며 학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저명한 인사 강의와 최신 연구 성과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진 못하였지만 연구자의 첫걸음을 시작한 나에겐 전체적인 알레르기 연구 경향을 알게 되는 완벽한 기회였다. 세계 각국에서 알레르기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토론하는 모습만으로도 조금은 지쳐있었던 병원 생활을 다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자극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전임의 수련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AAAAI 학회 참석을 하겠다고 다짐 해보았다.



2017년 AAAAI학회에서 안강모 교수님과